

# 나노라

한걸음 더 다가가면 만날 수 있는  
나라현 동부의 비보 (秘宝) '우다시'

- 하이킹 with 나노라: 도리미야마 산
- 무로지 절, 오노데라 절
- 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우다 애니멀 파크'
- 아무도 몰랐던 우다 이야기: 우다시로 이주한 프랑스인

제 8 호  
우다시

# 하이킹 with 나노라

## 우다시

## 도리미야마

등산 초심자도

즐겁게 등산할 수 있는

약 한시간 반 하이킹 코스

우다시에 있는 하이바라 역부터 도리미야마 공원까지의 하이킹루트를 소개합니다. 경치는 물론이거니와 긴테쓰 야마토야기 역으로부터 급행전차로 15분 거리로 접근성도 매우 좋은 우다시는 등산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이바라역 가까이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는 전단지 와 지도 등 여러가지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출발하기 전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과 철쭉 등 예쁜 꽃들 뿐만아니라 출발지점에서 정상까지 역사적인 유적도 다수 남아있어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 께도 딱맞는 코스 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하이바라 역에서 출발하여 우선 구 이세 가도(旧伊勢街道) 따라 걸어갑니다. 에도시대에 이세 신궁에 참배하러 가는 '이세마이리' 가 붐이 일면서 우다 지역에서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한 여관이 번성하였습니다. 그 예중 하나로 하이바라역에서 약 10분거리에 있는 료칸 '아부라야(あぶらや)' 가 있습니다. 목조의 격자가 길가에 자리해 있어 200년전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창업했을 때 부터의 여러가지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게 보관된 전통료칸의 모습이 에도시대로 돌아간 듯한 인상은 남깁니다.





서서히 북으로 올라가면 길이 조금씩 가파라져옵니다. 한적한 발경치가 눈앞에 펼쳐지고 여러종류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다시 상공관광과에 따르면 도리미야마 산은 1년중 언제가더라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길 옆에 피어있는 야생의 백합과 철쭉과 같은 꽃들 역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특히 많은 수의 철쭉과 아름다운 유명해서 매년 5월에는 철쭉축제가 열립니다. 자연이 매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정상 가까이에 있는 도리미야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무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연못에는 조용한 신사가 있어 마음이 안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무천황의 유적 전승지의 현창비와 여러 노래비 등 도리미야마 산의 역사의 깊이를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드디어 산 정상! 우다 그리고 야마토 분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절경 앞에 선 달성감과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가을 단풍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하이킹을 하고 싶으신 분께는 사쿠라이시의 하세테라 절과 야마베 아카히토의 무덤까지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도리미야마의 하이킹코스는 정상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반정도로 걸리며 등산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즐기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다시를 방문한다면 한번쯤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깐상식!**

도리미야마는 일본서기에서 진무천황이 제사를 지낸 곳으로 등장하며 지명의유래는 이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의 깊이가 느껴지네요.



##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로지 절

무로지 절은 770 년에서 780 년 사이에 간무천황의 쾌유를 위해 장수를 기원하며 창건된 `1200 년의 역사를 지닌 절입니다. 또한 당나라에서 진언밀교를 일본에 전한 승려 구카이(空海)에 의한 진언종의 도량 중 한 곳입니다. 무로지 절은 중국과의 인연이 깊은 절이기도 합니다.



문 앞 돌기둥



요로이자카 (아스카엔 제공)

주홍색 다리를 지나 세워진 문 앞 오른쪽 기둥에는 ‘노닌코야무로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진언종인 고야산(高野山)의 곤고부지(金剛峯寺)가 여성 출입을 금지한 것에 반해 무로지 절에서는 여성의 출입도 허락했기 때문에 ‘노닌코야(女人高野)’ 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인왕문을 지나면 그 유명한 ‘요로이자카(鎧坂)’ 가 보입니다. 5 월초에는 요로이자카 양 옆으로 석남화가 아름답게 만개합니다. 언덕 밑에서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는 것이 마치 참배하러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천년을 이어온 절에 걸맞는 참배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람배치도 (무로지 절 제공)



사진 1 : 십일면관음입상 (국보)



사진 2 : 미로쿠도의 석가여래좌상 (국보) (아스카엔 제공)

곤도(金堂)는 한자로 쓰면 금(金)을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당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일목조(一木造)의 오존(五尊)불상은 불교미술의 대성이며 금에 지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십일면관음입상(국보)는 ‘보물중의 보물’이라고 하여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가까이에서 볼 수 없습니다.(사진 1)

불상은 1200 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세월을 넘어 생생한 얼굴과 색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일목조 불상의 기술은 옛날 중국에서 전해져 왔다고 전해지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중국에는 천년의 역사를 넘어 손상없이 보존되어있는 목조불상은 그 수가 적습니다. 무로지 절이 산 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 전쟁의 불길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 뿐만아니라 이 곳 절에서도 천년 넘게 가람 보호에 노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인류공유의 문화재를 지금도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려 노력한 분들의 덕택 일 것입니다.

금당의 서남방향에는 미로쿠도(弥勒堂)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흰 얼굴을 하고 계신 석가여래좌상(사진 2)입니다. 이 좌상은 제 2 차세계대전중에 독일의 전시회에 전시되었다고합니다. 미로쿠도에서 오층탑으로 가는 중간에 본당인 간조도(灌頂堂)가 보입니다. 본당에서 400m떨어진 오쿠노인(奥の院)에는 미카게도(御影堂)가 있습니다. 일본의 높은 목조지붕건축기술은 곤도와 간조도, 미로쿠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불혼요(神仏混交)’ 라고 하여 신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로지 절에 있는 무로산에는 옛부터 용신이 살고 있다고 하여 무로지 절은 불교의 사원이면서도 8 세기에 류케쓰진자(龍穴神社) 신사가 창건되어 비를 부르는 신으로서 민중들로 부터 신앙되어 왔습니다. 일본인이 부처님과 신은 자연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자연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아스카엔 제공) :

십일면관음입상 (국보), 문주보살입상 (중요문화재), 중존석가여래입상 (국보), 약사여래입상 (중요문화재), 지장보살입상 (중요문화재)



미로쿠도(중요문화재, 아스카엔 제공) 무로지 절 총무 야마오카님과과의 인터뷰



밑에서 올려다본 오층탑



오층탑 (국보)

## 마애불과의 만남

### 오노데라 절

#### 오노데라 절 마애불의 유래

오노데라 절은 무로지 절의 서대문에 있습니다. 우다가와 강의 암벽에 집적 새겨져 있는 미륵여래불입상이 있으며 입상의 높이는 11.5m로 일본에서 가장 큰 석불입니다. 오노데라의 오카다 주지스님에 의하면 약 800년전 고토바 상황이 송나라로부터 고후쿠지(興福寺) 절로 초대한 '이교마쓰(伊行末)' 하는 중국인 기사(技師)의 일행을 오노데라에 파견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륵여래불상은 약 30년전에 한번 복원했습니다. 800년이나 지난 지음 선인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인연과 깊은인연과 역사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 미가와리지조손

미가와리지조손(身地藏尊)은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태웠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지역 사람들은 미가와리지조손을 '부지코소(無事高僧)'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존경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월 24일에는 지장을 모시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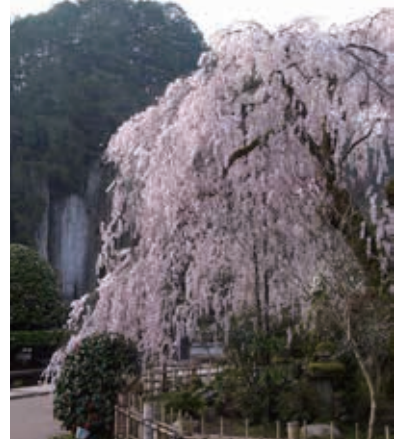
오노데라 절 미륵마애불



미로쿠게쇼센코쿠다이하가이부쓰(大野寺弥勒下生線刻大磨崖仏) 오노데라 절 제공

#### 시다레자쿠라

300살의 시다레자쿠라(버들가지같이 늘어진 벚꽃) 역시 오노데라 절의 명물입니다 지금은 병해로 인해 가지를 잘라 치료하는 중이지만 수년 후 다시 원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시다레자쿠라 (아스카엔 제공)

오 춘란

무로지 절 홈페이지 <http://www.murouji.or.jp/>



같이 놀아요!

놀면서 '생명의 소중함' 을 배울 수 있는

# 우다 애니멀 파크

푸른 하늘 밑에 펼쳐지는 녹색의 잔디위에서 유유자적 노닐고있는 염소들. 동화에서나 나올법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나라현영 우다 애니멀파크' 입니다.

여러 경험과 동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위해 지금의 애니멀 파크가 만들어졌다고 우다 애니멀 파크의 사카구치님은 말합니다.

## 버터 만들기 체험



버터 만들기는 스텝분들의 친절 한 설명을 들으며 진행됩니다. 생크림이 들어간 플라스틱병을 흔들면서 단백질과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구를 분리하면서 버터와 버터 밀크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물소리가 나는듯하다가 바로 휩크림 상태

가 되면서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좀 더 흔들면 병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소리가 들리면서 버터가 만들어 집니다. 손의 감각과 소리를 느끼면서 자신만의 버터를 만들어 가다보면 마지막에는 동그란 버터와 흰 버터밀크만이 남게되면서 완성됩니다. 크림미 한 맛의 버터 밀크도 꼭 한번 맛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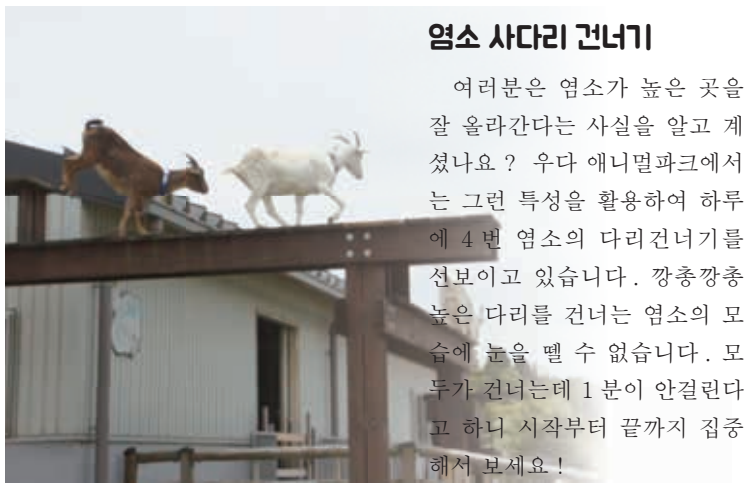
막 만들어진 버터는 미리준비된 크래커와 같이 그자리에서 시식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있지 않는 부드러운 버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버터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가족들도 즐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젖소우유짜기 체험

버터 만들기를 신청한 분은 젖소 우유짜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취재했을 당시에는 애니멀파크에 살고 있는 젖소 '스모모' 가 체험을 도와주었습니다. 우유짜기 체험이라고하면 보통 갓搾 우유를 마신다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곳에서는 자신이搾 우유를 마실 수 없습니다. 스모모는 원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였지만 송아지를 더이상 낳을 수 없게된 후 우유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스모모로부터搾 우유는 다른우유와 비교했을 때 매우 옅은 색을 띄고 있습니다.

스모모는 우유를 생산하는 역할은 끝났지만 이 곳 우다 애니멀파크에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우유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들은 동물과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염소 사다리 건너기

여러분은 염소가 높은 곳을 잘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다 애니멀파크에서는 그런 특성을 활용하여 하루에 4번 염소의 다리건너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쾡쾡쾡 높은 다리를 건너는 염소의 모습에 눈을 땔 수 없습니다. 모두가 건너는데 1분이 안걸린다고 하니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 염소와 양 먹이주기체험

염소와 양이 살고 있는 우리입구에서 먹이를 받아 직접 염소와 양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취재한 날에는 귀여운 아기염소와 아기양들이 반겨 주었습니다. 맛있는 먹이를 먹는 염소와 양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다 애니멀 파크에서는 위에 적은 동물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도 여러 체험을 하면서 우리들은 다양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테마파크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들 수 있는 이 곳은 직접 동물들과 접촉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을 깊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학교' 입니다. 여러분도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호선

우다 애니멀 파크 <http://www.pref.nara.jp/1839.htm>



※체험은 날씨와 시기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 해 주십시오.

# 아무도 몰랐던 우다 이야기

‘우다시는 어떤 곳인가요?’ ‘외국인에게 친절한 곳인가요?’ 이런 질문의 답을 찾고자 2011년부터 우다시에 살고 있는 프랑스 출신 실랑 샤브롤 (Sylvain Chabrol) 씨를 만났습니다.

## 어떻게 우다시에서 살게 되었나요?

아내와는 호주의 허브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 후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시골에 살고 싶어 자연이 풍부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우다시를 찾아냈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어가 서툴렀습니다만 운 좋게 아오하니카이 (青葉仁会)의 허브 클럽에서 5년간 빵을 만드는 기술자로 일 할 수 있었습니다.

## 메리메로 갈레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나가노의 하쿠바무라 (白馬村)로 여행을 갔을 때, 프랑스의 전통 음식인 갈레트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 또 기뻐합니다. 예전부터 쉐프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갈레트와 같은 프랑스 요리를 일본에서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4월 부터 일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들어서 본격적으로 ‘메리메로 (Méli-Mélo)’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월 이벤트 \*1에 참가하여 갈레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m X 1m 정도의 자리가 있으면 출장판매도 주문받고 있습니다.



## 우다시에서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물론이죠. ‘후루사토겐키무라 (ふるさと元氣村)’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 곳에서는 아트체험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 ‘일일셰프’ 등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다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대를 뛰어넘은 인연과 만남이 있기에 커뮤니티 라이프에 있어서 귀중한 곳입니다.

별이 내리는 골짜기의 집 ‘후후후 (fufufu)’도 추천합니다. 강변에 있는 카페인데 분위가 좋아지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열고 있으며 이곳에 예약하면 메리메로의 갈레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 메리메로의 컨셉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역사람들과의 연결과 맛있고 안전한 갈레트 \*2 등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가닉 농산물을 사용하고 비건과 베지터리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등 누구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갈레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레이프는 두유로 만들기 때문에 우유와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맛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소재를 사용해 프랑스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일본과 프랑스의 가교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갔나요? (웃음)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에 와서 일본 마을의 커뮤니티의 좋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나눠먹고 서로에 대해 상담하는 등 따뜻한 곳입니다. 메리메로를 하고 있기에 손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카페의 경영자와 농가의 사람들 등 다양하고 멋진 만남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곳에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메리메로의 갈레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하기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등록해 주세요.

오스트리 잔느

(1) 이벤트: 매주 수요일 '하라페코사토노이치 (ハラペコ里の市)  
매월 둘째주 토요일 '미에현의 이메오가닉 마켓 (三重オーガニックマーケット)  
매월 세째주 일요일 '시가현의 '오가닉과 이어지는 마켓 시가'  
(オーガニックとつながるマーケット・しが)  
(2) 갈레트란? 프랑스 브르타뉴지역의 명물. 메밀가루를 사용하며 소금으로 간을 한 크레이프.

링크참조:  
메리메로 (メリメロ) <https://www.facebook.com/Meli-Melo-392981520801494/>  
후루사토 겐키무라 (ふるさと元氣村) <http://web1.kcn.jp/furusatogenkimura/>  
별이내리는 골짜기집 (星降る谷の家)fufufu <https://www.facebook.com/fufufu222/>

# 나노라 (奈の良)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해외에서 온 방문객과 나라현 현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라현에서 본 매력적인 곳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 취재한 장소



- P.1-2 하이킹 with 나노라 (도리미야마)
- P.3-4 무로지 절, 오노데라 절
- P.5 우다 애니멀파크
- P.6 아무도 몰랐던 우다 이야기

## 오시는길

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

오사카, 나고야에서 오실 경우

메이한 국도 하리 인터체인지로부터 국도 369 호선을 따라 20 분 소요

나라에서 오실 경우

국도 169 호선에서 국도 165 호선을 지나 사쿠라이에서 20 분 소요

## 편집후기

이번 취재에 협력해주신 무로지 절을 비롯하여 오노데라 절, 우다시청, 우다 애니멀파크, 메리메로, 우다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17년 9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FAX : 0742-22-1260

